

01

02

국민의 행복과 희망을 제고하는 창조경제란

국민의 행복과 희망을 제고하는 창조경제란
**창조경제 성장 동력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집단 창의성**

창조경제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이 탄탄한 바탕이 되고 그 위에서 기업
가 정신과 창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
들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대로 추동하
기 위해서는 이것과 병행해 다양한 분야와 경제주체들 간 수평적 차원의
융합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집단 창조의 에너지를
제대로 끌어낼 수 있다. 이 에너지는 창조경제를 움직이는 힘으로서 경제
적 가치 외에 문화적, 예술적, 사회적 가치들을 창출해 낸다.

창조경제란 사회적 부의 창출에 핵심이 되는 생산요소가 물질에서 창의
성과 상상력이라는 정신으로 대체되는 경제구조를 의미한다. 특히 네트워
크로 긴밀하게 연결된 집단 지성과 집단 창의력이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창조경제의 본질은 인류의 정신활동이 사회적 부
의 창출을 직접 견인하게 되었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글_이장우

경북대학교 교수
antonio@knu.ac.kr

그렇다면 창조경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정부가 선언하고 있듯이 국민의 행복과 희망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크고 작은 창의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손쉽게 행복을 일구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평범한 국민들도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스스로 행복을 가꾸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본질이다. 국민 대다수가 창조인력으로 편입되어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고 소비지출의 중심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창조경제는 중산층 복원을 통해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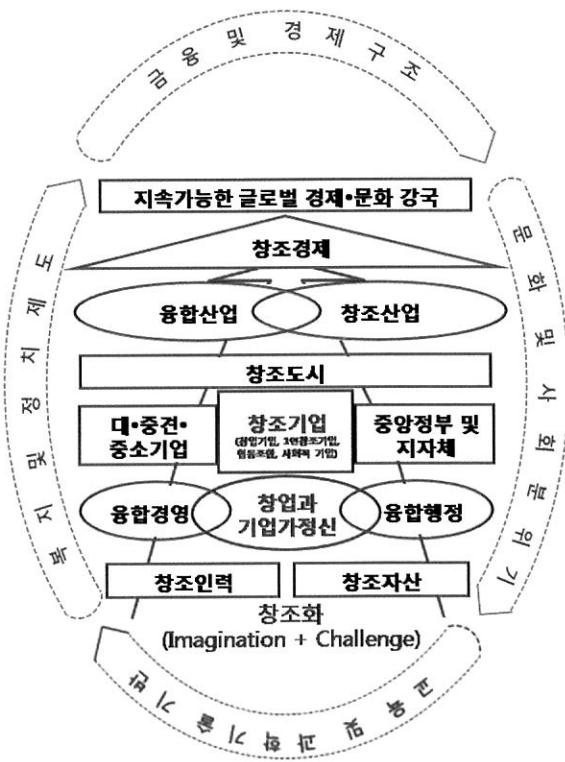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과 과학기술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창조화라는 내부 동력에 의해 실현된다. 창조화란 창의적 발상(Imagination)과 도전적 행동(Challenge)의 결합을 의미한다. 즉 행동이 결여된 동상이나 맹목적인 모험이 아니라 상상력과 과감한 도전을 결합해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산업화와 정보화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내부 동력이다. 이 창조화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및 과학기술 기반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즉 교육과 과학기술의 바탕 위에서 창조인력이 창조자산을 활용해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작동한다. 그 결과 창조인력이 활동하는 지역이 창조도시로 활성화되고, 핵심 산업인 융합산업과 창조산업이 발전한다.

특히 융합산업은 특정 산업과 기술 분야에 국한되었던 단위 기술들이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으로 탄생함으로써 발전한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휴대폰과 자동차도 대표적인 융합산업이다. 선진국에서는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 인지과학(CS) 등 소위 NBIC 기술을 중심으로 융합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창조산업은 생산과 유통에 있어 창의성이 핵심이 되는 산업으로 개인의 창의성이나 기술 등을 활용해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를 소득과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광고, 건축, 미술,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출판, 소프트웨어, 게임, 음악, 공연, 방송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창조경제의 발전이 가속되고 있는 이면에는 기술융합 트렌드의 확산이 기폭제 역할을 한다. 기술이 더욱 빠르게 발전하면서 표준화되고 모듈화되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의 니즈(Needs)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상호 융합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현상은 ICT(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와 공급자 간 네트워크가 긴밀해짐에 따라 더욱 가

▶ 1. 창조경제의 틀과 창조화



속되고 있다.

이러한 융합현상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되고 있으며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생산방식과 사업모델들이 달라지고 있다. 한마디로 특정 기술을 개발해 꾸준히 보유하는 것보다 독특한 사업모델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기술들을 융합해 낼 수 있는 창의성과 상상력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창의성과 상상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어느덧 부의 창출의 중심이 되고 있다.

기술융합 트렌드에 의해 촉발되고 있는 창조경제에서 지식, 창의성, 상상력 등의 융합은 필수적이다. 특히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적 지식들이 융합해 응용과학을 만들어 내고 응용과학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융합해 새로운 응용기술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응용기술들의 융합해 상업화할 수 있는 혁신적 제품들이 창출된다. 이러한 수직적 차원에서의 융합은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경제 발전을 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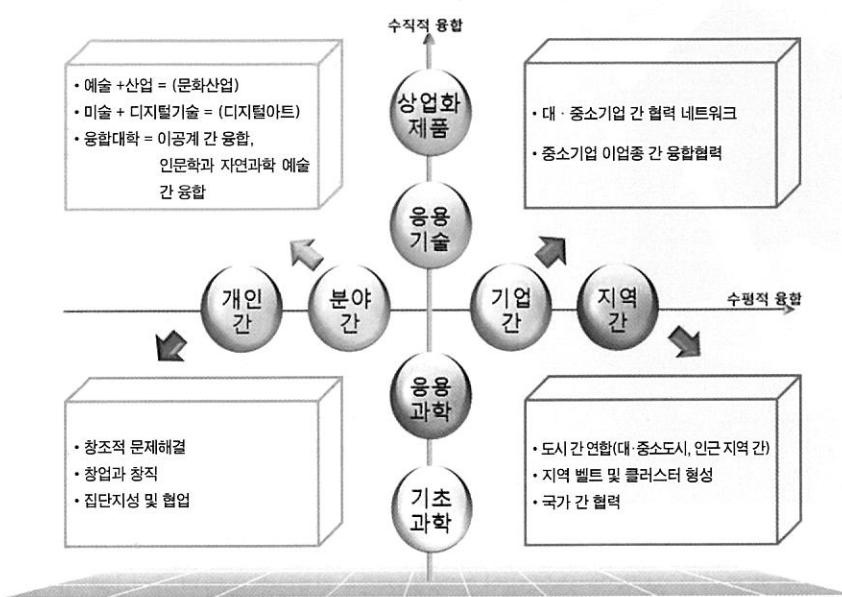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융합의 신바람

창조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융합은 <그림 2>에서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그림의 수직적 차원은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상업화 제품을 만들어 내는 융합을 의미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활동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바로 수평적 차원의 융합이 이것을 다루기 때문에 수직적 차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수직적 차원의 과업과 수평적 차원의 경제주체 활동이 결합하여 시너지 즉, 신바람을 일으킬 때 국가차원의 창조화가 지속적으로 가능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수준에서 융합의 신바람은 <그림 2>와 같이 두 차원의 결합에 의한 선순환에 의해 일어난다. 창조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융합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수평적 차원의 융합 형태는 다양하다. 개인 차원을 보면 브레인스토밍 등에 의해 아이디어들이 결합하여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개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집단지성을 형성하고 창의성을 발현시킴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분야 간 융합은 서로 다른 분야가 결합해 새로운 영역이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미술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아트라는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키거나 예술 분야와 산업이 결합해 문화 산업을 일으키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업 간 융합은 서로 다른 기업들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나,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나서는 것을 들 수 있다. 지역 간 융합은 여러 지역들이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지역들이 관광 벨트나 산업 벨트로 결합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가 간 협력과 결합도 지역 간 융합에 속한다.

수직적 융합과 수평적 융합은 ‘함께’ 가야 한다. 이미 세상에는 과학기술로 창출된 기술이 충분하게 존재한다. 이 기술이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평적 융합이 동원되어야 한다. 수평적 융합은 과학과 기술을 삶 안으로 확산시키고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 2. 창조경제에서의 융합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성장과 복지, 고령화, 청년실업, 낙후된 지역과 소외계층, 경제 불확실성 등.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과학기술에서만 찾을 수 없다. 기술 하나로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그 기술을 수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기술을 '수많은 사람'에게 줘어주는 것이 바로 수평적 융합이다.

창조경제 실천의 틀

국민의 행복과 희망을 제고시키는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타분야와의 융합이 필수적이다. 융합의 신바람은 앞의 <그림 1>에서 제시한 틀 안에서 일어난다. 창조인력이 국가의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창업과 경영 등 가치창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핵심 산업들이 발전한다. 그리고 그 산업이 밀집한 지역과 도시에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구성요소로서 핵심 산업, 지역 공간, 경제주체, 경영방식, 국가의 창조자산 등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창조경제를 직접 견인하는 것은 융합산업과 창조산업이다. 융합산업은 특정 산업과 기술 분야에 국한되었던 단위 기술들이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으로 탄생함으로써 발전한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휴대폰과 자동차도 대표적인 융합산업이다. 이와 함께 창조산업은 생산과 유통에 있어 창의성이 핵심이 되는 산업으로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창의적 생태계로서 지역 공간이 중요하다. 사이버 공간과 모바일 소통으로 한껏 고조된 집단 창의성이 물리적 공간에서 창조력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와 같이 하이테크 지역에 밀집하여 클러스터를 이루거나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문화도시에 집중되어 세



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도시나 지역을 일컬어 창조도시라 부른다.

셋째, 경제주체의 역할이 달라진다. 시장의 경쟁구도가 개별기업 간 경쟁에서 생태계 간 경쟁으로 변화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가 중요해진다. 또한 작은 조직체들이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기획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1인창조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소규모 조직들이 주목을 받는다. 정부의 역할도 새롭게 변화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하는 융합행정이 중요하다.

넷째, 새로운 경영방식이 요구된다. 융합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 모두의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에 따라 소위 공유가치 창출(CSV)을 위한 경영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창업과 기업가정신의 고취 또한 혁신과 열정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다섯째, 국가 수준에서 창조자산의 관리가 중요하다. 창조인력은 창의성을 구현하기 위해 물적 재원, 지식, 여유 시간, 분위기, 사회 인프라 등 기초적 자산을 필요로 한다. 창조인력이 가치창출을 위해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창조자산이라고 한다. 유형의 창조자산은 창조인력이 모이거나 상호 교류하는 시설물이나 공간을 말한다. 무형의 창조자산으로는 특히, 저작권 등 지적재산과 브랜드, 자부심, 신뢰관계 등 사회적 자본 등이 포함된다.

창조경제 정책은 민간의 창의성 유도해야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지식경제가 경제의 핵심을 물질에서 지식으로 바꾸었다면 21세기 창조경제는 지식에 창의성과 상상력을 융합해 인간의 창조력에 빅뱅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지식 노동자’들은 온라인과 모바일로 연결되어 집단 지성과 집단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창조인력으로 거듭나고 있다.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은 바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집단 창의성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구하는 IT 플랫폼 하에서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 정책은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창조경제 구현의 추동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공감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의 발전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술융합 트렌드가 촉매제 역할을 한다. 따라서 1%의 엘리트들이 앞 다투어 이공계에 진학하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하며 이들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와 분위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창조경제의 완성은 국민 90%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이루어진다. 국민의 행복과 희망은 참여를 통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ST**